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정원* · 김주현** · 강현지***

초 록

민감성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Aron은 민감성과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에 있어 양육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감성과 우울 및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83명을 대상으로 민감성 척도, 부모 양육행동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및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Process macro의 조절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심미성 지각이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반면, 자극 불편감이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둘째, 자극 불편감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자극 불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전이와 긍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민감성이 발현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소년, 민감성, 우울, 부모 양육행동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이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이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jhkim1211@korea.ac.kr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이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I. 서 론

어떠한 자극 정보가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되면 인간은 이에 대한 반응을 한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동일한 외부 자극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처럼 환경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민감성이 있다. 민감성이란 감각자극, 고통, 다른 사람의 기분, 예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외적 정보를 강하고 깊게 처리하여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Aron & Aron, 1997). 사람에 따라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가 다르므로 이러한 민감성에 개인차가 나타난다(Dunn, 2001). 즉, 신경계가 반응하는 최소한의 자극 수준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민감성은 생물학적 근거를 가진 비교적 안정적인 특질이라 할 수 있다(Aron & Aron, 1997; Dunn, 2001).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감각 자극을 더 쉽게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나 음식의 온도 등을 보다 잘 알아차린다. 또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움직임에 쉽게 산만해지기도 하고, 옷에 붙은 상표의 느낌까지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Dunn, 2001; Liss, Timmel, Baxley & Killingsworth, 2005).

Aron과 Aron(1997)은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감각처리에서의 민감성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들은 민감성을 감각 자극을 잘 인식하고, 자극에 대한 행동을 억제하며, 신중하게 환경 자극을 처리하고, 강한 정서적, 생리적 반응을 보이는 특성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았다. Smolewska와 McCabe, Woody(2006)는 민감성을 심미적 민감성(aesthetic sensitivity), 낮은 감각 자극 역치(low sensory threshold), 자극 수월성(ease of excitation)의 세 가지 하위 구성개념들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심미적 민감성은 미술이나 음악 등에 크게 감동하는 것과 같이 미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낮은 감각 자극 역치는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불쾌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극 수월성은 내부 및 외부 자극에 쉽게 압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감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김경민과 송지은, 조은영(2020)은 한국 청소년의 민감성을 심미성 지각과 자극 불편감, 정서적 공감의 세 가지 하위 구성개념들로 설명하였다. 심미성 지각은 아름다운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 자극 불편감은 외부에서 오는

강한 자극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력되는 정서적 자극에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 또는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민감성 연구들에서는 주로 민감성과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Bakker & Moulding, 2012; Liss et al., 2005), 불안(Bakker & Moulding, 2012; Liss et al., 2005; Neal, Edelmann & Glachan, 2002), 스트레스(Bakker & Moulding, 2012), 사회불안(Neal et al., 2002), 회피성 성격장애(Meyer & Carver, 2000) 등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고 외부 자극을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Sasson et al., 2008). 감각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집착하게 되면 불특정한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김서윤, 하은혜, 2009), 이는 곧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 역시 과하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정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Serafini et al., 2017). 즉,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각에 대한 역치가 낮은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숙, 김유선, 백다래, 홍기훈, 정혜림,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민감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특히 우울에 취약할 수 있는 시기인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라는 점에서 다양한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겪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학업 및 진로 문제, 또래관계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정옥분,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민감성 연구들에서는 까다롭고 민감한 것을 취약한 특성으로 보아 민감성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였다(Monroe & Simons,

1991). 그러나 이후 학자들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취약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외부 감각 정보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부적응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Belsky & Pluess, 2009). 즉, 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을 더욱 잘 알아차리고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나 적응 상의 어려움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감성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Aron은 민감성과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에 있어 양육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항상 우울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양육환경을 경험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민감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과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더 영향을 받아 우울감과 긴장감,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on, Aron & Davies, 2005).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민감성이 부정적인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역기능적인 환경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함께 최근에는 긍정적인 환경에서의 민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elsky & Pluess, 2009; Pluess et al., 2018).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자극 정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환경 또한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Sobocko & Zelenski, 2015). 따라서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민감성이 강점이 되어 보다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즉,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더 불행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Aron & Aron, 1997).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ron과 Aron의 연구(1997)에서는 아동기에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했을수록 대학생 자녀들이 자신의 아동기 행복감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민감성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완충 혹은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감성이 유전적 요소에 기반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임을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민감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현되는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민감성이 단일차원이 아니라 여러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Aron & Aron, 1997; Evans & Rothbart, 2008; Pluess et al., 2018)에 따라 민감성의 하위 구성개념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 패턴이 민감성의 하위 구성개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낮은 감각 자극 역치와 자극 수월성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Liss, Mailloux & Erchull, 2008; Yano & Oishi, 2018), 심미적 민감성은 그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ano & Oishi,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민감성이 서로 구분되는 하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결과적으로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위 구성개념들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경우, 청소년의 민감성 하위 구성개념들이 우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 연구들에서 민감성의 하위 구성개념에 따라 우울과의 관련성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본 연구에서는 심미성 지각, 자극 불편감, 정서적 공감 등 한국 청소년의 민감성 하위 구성개념이 우울과 각각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때 민감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그 관련성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우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및 부모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모의 양육행동이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7개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평균 연령은 16.7세였으며, 남학생이 142명(50.2%), 여학생이 140명(49.5%), 무응답 1명(0.4%)이었다. 또한 중학생이 165명(58.3%), 고등학생은 117명(41.3%), 무응답 1명(0.4%)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2 34명(12.0%), 중3 131명(46.3%), 고1 48명(17.0%), 고2 19명(6.7%), 고3 50명(17.7%), 무응답 1명(0.4%)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민감성 척도, 우울 척도, 부모 양육행동 척도 세 가지이다.

1) 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Pluess와 동료들(2018)이 개발한 민감성 척도(Highly Sensitive Child Scale; HSC)를 김경민과 송지은, 조은영(2020)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심미성 지각, 자극 불편감, 정서적 공감 총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성 지각은 아름다움을 쉽게 알아차리고 즐기는 것과 관련된 민감성이고, 자극 불편감은 강한 외부 자극에 대해 불쾌함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것과 관

련된 민감성이다.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자극의 감정에 쉽게 동요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역치가 낮은 것과 관련된 민감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의 구성개념에 보다 더 부합하며 명확한 요인명을 사용하고자 ‘정서적 공감’을 ‘정서적 전이’로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과 관련된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심미성 지각 .73, 자극 불편감 .64, 정서적 전이 .60으로 나타났다.

2)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경수와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에 대하여 ‘극히 드물게(1일 이하)’ 1점에서부터 ‘거의 대부분(5~7일)’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92로 나타났다.

3) 부모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3문항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 부정적 양육행동(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으로 구분하여 6가지 하위요인,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학대(6문항), 방치(5문항) 문항의 경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병리적인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예: 학대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 방치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도 개발 시 두 요인의 평균이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하위

요인을 제외하고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먼저, 긍정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보상을 주거나 훈육하는 것을 말한다.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전반적 생활에 대해 알고 있고, 합리적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지도하며 자녀를 존중 및 수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한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 양육행동은 비일관적으로 훈육하고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며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각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해당 하위요인의 양육행동을 자주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긍정적 양육행동 .92, 부정적 양육행동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한 7개 중고등학교에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사전에 교사에게 미리 협조를 구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설문지 실시 전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의 개인정보 활용 및 비밀보장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참여 학생과 협조 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IBM Co., Armonk, NY)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전반적인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용으로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2.11 Macro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건부효과의 경향을 검토하기 위해 평균 및 평균 $\pm 1SD$ 지점에서 영향력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및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및 부모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청소년의 민감성은 각 하위요인에 따라 우울과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심미성 지각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r = -.13, p < .05$), 자극 불편감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4, p < .001$), 정서적 전이는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민감성과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감성 하위요인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심미성 지각($r = .18, p < .01$)과 정서적 전이($r = .16, p < .01$)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정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극 불편감은 긍정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부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1, p < .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

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과 부적 상관을($r = -.43, p < .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47, p < .001$).

표 1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및 부모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283)

	2	3	4	5	6	M(SD)
청소년 민감성						
1. 심미성 지각	.03	.42***	.18**	-.02	-.13*	2.18(.56)
2. 자극 불편감		.05	-.11	.21***	.24***	3.47(.65)
3. 정서적 전이			.16**	.01	.08	3.52(.62)
부모 양육행동						
4. 긍정적 양육행동				-.50***	-.43***	3.07(.52)
5. 부정적 양육행동					.47***	2.18(.56)
6. 청소년 우울					-	1.91(.53)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민감성 각 하위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6번의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면상의 한계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N= 283)

독립변인	B	SE	t	LLCI	ULCI
(상수)	1.90	.28	68.25***	1.84	1.95
자극 불편감 (X)	.13	.04	2.92**	.04	.21
부정적 양육행동 (Z)	.41	.05	8.22***	.31	.51
자극 불편감 x 부정적 양육행동 (XZ) $\Delta R^2 = .01, F = 5.23^*$.16	.07	2.29*	.02	.30
$R^2 = .26, F = 31.88^{***}$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극 불편감은 우울에 정적 영향($t = 2.92, p < .01$)을 미쳤으며, 부정적 양육행동도 우울에 정적 영향($t = 8.22, p < .001$)을 미쳤다. 자극 불편감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29, p < .05$). 이는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과 우울 간의 관계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부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먼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수준의 집단($M+1SD$)과 평균 수준의 집단에서는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수준의 집단($M-1SD$)에서는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에서는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이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부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에서는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과 우울이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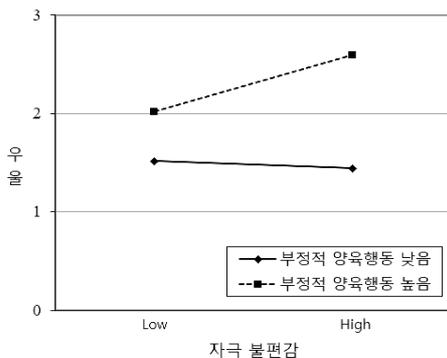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표 3

부정적 양육행동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증 (N=283)

집단구분	B	SE	t	LLCI	ULCI
M-1SD	.04	.05	.73	-.07	.15
M	.12	.04	2.71*	.03	.20
M+1SD	.21	.06	3.56***	.09	.33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적 전이는 우울에 정적 영향($t=2.67, p<.01$)을 미쳤으며, 긍정적 양육행동은 우울에 부적 영향($t=-8.28, p<.001$)을 미쳤다. 정서적 전이와 긍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12, p<.05$). 이는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와 우울 간의 관계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의미한다.

표 4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와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N=283)

독립변인	B	SE	t	LLCI	ULCI
(상수)	1.92	.03	68.01***	1.86	1.97
정서적 전이 (X)	.12	.05	2.67**	.03	.21
긍정적 양육행동 (Z)	-.45	.05	-8.28***	-.56	-.34
정서적 전이 x 긍정적 양육행동 (XZ) $\Delta R^2 = .01, F = 4.50^*$	-.18	.08	-2.12*	-.34	-.02

$R^2 = .22, F = 26.3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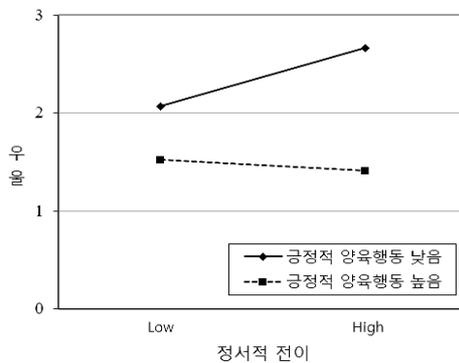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와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조절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긍정적 양육행동의 정도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먼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수준의 집단(M-1SD)과 평균 수준의 집단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수준의 집단(M+1SD)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가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전이와 우울이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5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증

(N=283)

집단구분	B	SE	t	LLCI	ULCI
M-1SD	.22	.06	3.55***	.10	.34
M	.12	.05	2.71**	.03	.21
M+1SD	.02	.07	.25	-.12	.16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및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및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민감성 중 심미성 지각은 우울과 부적 관련이, 자극 불편감은 우울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적인 것을 쉽게 알아차리고 즐기는 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적게 느끼는 반면, 강한 외부 자극에 쉽게 불쾌감을 느끼는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즐기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 자극에 쉽게 압도되거나 불쾌해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Yano & Oishi,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부 자극에 쉽게 압도되거나 불쾌해할수록 부정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Pluess et al., 2018)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김경민 외, 2020)에서도 심미성 지각은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극 불편감은 신경증과 정적 관련이, 외향성 및 친화성과는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민

감성이 하위요인에 따라 우울과의 관련성이 다르며, 특히 자극 불편감이 높은 청소년이 우울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 우울에 대한 개입 시 기질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민감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상담 개입 시 청소년의 민감성 수준, 특히 우울에 취약할 수 있는 민감성 특성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은 내담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즉, 부모가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민감한 태도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가 자신에 대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며 상황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과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를 적게 경험하며,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과 간섭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이은경, 한세영, 2016; 장지우, 허균, 2017)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한 상담개입 시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극 불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 자극에 대해 불쾌함이나 불편감을 쉽게 느끼는 청소년은 우울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부모가 비일관적으로 대하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차갑고 거부적인 경우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Liss et al., 2005)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였을 때 청소년의 자극 불편감과 우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하면 자극 불편감이 높은 청소년도 우울을 적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감성이 높

은 사람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Aron과 동료들(200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부모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한다면 자극 불편감이 청소년의 우울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타고난 기질인 자극 불편감의 영향을 부모라는 1차적인 환경이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강한 외부 자극에 대해 불쾌함이나 불편감을 쉽게 느끼는 청소년들의 우울에 대한 개입 시 부모의 양육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고려하고,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시 청소년의 민감성과 관련된 기질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 특성에 적합한 양육행동이 어떤 것인지 코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전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목소리 등에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전이되는 경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정을 갖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는 이러한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정서적 전이가 높은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렵고 스트레스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주장(Pluess, 2017; Pluess & Belsky, 2013)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사람들은 본래 긍정적인 환경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특성에 의해 긍정적인 환경에 더 민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Pluess, 2017; Pluess & Belsky, 2013).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요되는 사람들은 부모의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에도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자극에 정서적으로 동요되기 쉬운 기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나 환경에 쉽게 동요되어 우울을 느낄 수 있지만,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이를 완충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에 쉽게 동요되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우울에 대한 개입 시 부모를 대상으로 기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양육행동에 특히 더 민감할 수 있다(Liss et al., 2005). 그리고 민감성이 높은 자녀는 부모의 자극을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감성이 부정적인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환경에도 적용된다는 최근의 주장(Pluess, 2015)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민감성과 부정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나아가 긍정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민감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 또한, 기질적이고 변화하기 어려운 민감성이라는 특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양육행동이 조절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가장 1차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도 혹은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민감성은 안녕감이나 긍정 정서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민감성 중 심미성 지각은 우울과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안녕감이나 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대한 민감성과 부모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일부에서만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 민감성 척도의 경우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민감성 척도와 관련된 연구 역시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민감성이라는 기질에는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다소 넓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민감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

모 양육행동이 갖는 중요성을 밝혔으며, 특히 청소년의 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증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의 민감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민, 송지은, 조은영 (2020). 한국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1(1), 53-75. doi:10.14816/sky.2020.31.1.53
- 김서윤, 하은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신체감각 증폭지각 및 신체적 귀인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49-162.
- 이은경, 한세영 (2016). 부모의 애정과 감독 및 비일관적 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3), 153-172. doi:10.15284/kjhd.2016.23.3.153
- 장지우, 허균 (2017). 스마트 교육을 위한 청소년 우울, 부모양육행동, 또래관계 및 휴대폰 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8(4), 89-97. doi:10.7472/jksii.2017.18.4.89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최은숙, 김유선, 백다래, 홍기훈, 정혜림 (2015). 초기 청소년의 감각처리특성 및 인성 간의 관련성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3(4), 35-45. doi:10.14519/jksot.2015.23.4.03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Aron, E. N., & Aron, A. (1997).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introversion and emoti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45-368. doi:10.1037/0022-3514.73.2.345
- Aron, E. N., Aron, A., & Davies, K. M. (2005). Adult shyness: The interaction of temperamental sensitivity and an adverse childhood environ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181-197. doi:10.1177/0146167204271419
- Bakker, K., & Moulding, R. (2012).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dispositional mindfulness and negative psychological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3), 341-346. doi:10.1016/j.paid.2012.04.006

-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 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5*(6), 885-908. doi:10.1037/a0017376
- Ben-Sasson, A., Cermak, S. A., Orsmond, G. I., Tager-Flusberg, H., Kadlec, M. B., & Carter, A. S. (2008). Sensory clusters of toddl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Differences in affective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8), 817-825. doi:10.1111/j.1469-7610.2008.01899.x
- Dunn, W. (2001). The sensations of everyday life: Empirical, theoretical, and pragmatic considera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6), 608-620. doi:10.5014/ajot.55.6.608
- Evans, D. E., & Rothbart, M. K. (2008). Temperamental sensitivity: Two constructs or on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1), 108-118. doi:10.1016/j.paid.2007.07.016
- Hayes, A. F.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iss, M., Mailloux, J., & Erchull, M. J.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lexithymia, autism, depression,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3), 255-259. doi:10.1016/j.paid.2008.04.009
- Liss, M., Timmel, L., Baxley, K., & Killingsworth, P. (2005).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parental bonding,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8), 1429-1439. doi:10.1016/j.paid.2005.05.007
- Meyer, B., & Carver, C. S. (2000). Negative childhood accounts, sensitivity, and pessimism: A study of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4*(3), 233-248. doi:10.1521/pedi.2000.14.3.233
- Monroe, S. M., & Simons, A. D. (1991). Diathesis-stress theories in the context of life stress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 Bulletin*, 110(3), 406-425. doi:10.1037/0033-2909.110.3.406
- Neal, J. A., Edelmann, R. J., & Glachan, M. (2002). Behaviou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4), 361-374. doi:10.1348/014466502760387489
- Pluess, M. (2015). Individual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sensitivit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9(3), 138-143. doi:10.1111/cdep.12120
- Pluess, M. (2017). Vantage sensitivity: Environmental sensitivity to positive experiences as a function of genetic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85(1), 38-50. doi:10.1111/jopy.12218
- Pluess, M., Assary, E., Lionetti, F., Lester, K. J., Krapohl, E., Aron, E. N., & Aron, A. (2018). Environmental sensitivity in children: Development of the Highly Sensitive Child Scale and identification of sensitivity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51-70. doi:10.1037/dev0000406
- Pluess, M., & Belsky, J. (2013). Vantage sensitivity: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 to positive experi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9(4), 901-916. doi:10.1037/a003019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10.1177/014662167700100306
- Serafini, G., Gonda, X., Canepa, G., Pompili, M., Rihmer, Z., Amore, M., & Engel-Yeger, B. (2017). Extreme sensory processing patterns show a complex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impulsivity, alexithymia, and hopelessnes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0(1), 249-257. doi:10.1016/j.jad.2016.12.019
- Smolewska, K. A., McCabe, S. B., & Woody, E. Z. (2006).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The components of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their relation to the BIS/BAS and "Big F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269-1279. doi:10.1016/j.paid.2005.09.022

- Sobocko, K., & Zelenski, J. M. (2015). Trait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Distinctive associations for different aspects of sensi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1), 44-49. doi:10.1016/j.paid.2015.03.045
- Yano, K., & Oishi, K. (2018). The relationships among daily exercise,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depressive tendency i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7*(1), 49-53. doi:10.1016/j.paid.2018.01.047

ABSTRACT

The influence of sensitivity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Choi, Jungwon* · Kim, Joohyun* · Kang, Hyunj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itivity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A total of 283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s and moderation model using PROCESS macro.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showed negative associations with aesthetic awarene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In contrast, depression exhibited positive associations with discomfort from external stimuli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Seco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moderated the influence of discomfort from external stimuli on depression, wherea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moderated the influence of emotional transference on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sensitivity can serve as either a risk or a protective factor when it comes to depression, with this being dependent upon the quality of the parenting adolescents receive.

Key Words: sensitivity,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s

투고일: 2020. 2. 19, 심사일: 2020. 5. 7, 심사완료일: 2020. 5. 14

* Departmen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